

약학대 2022년부터 '통합 6년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5% 이내 취약계층 선발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하면 대입전형 일정 등 조정 가능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현행 '2+4년제(학부 2년+약학전공 4년)'와 '통합 6년제' 중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대가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대는 '2+4년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4년제란 다른 전공을 2

년간(4학기)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거나 후 편입을 거쳐 4년간 약학을 공부하게 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2006년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2009년부터 2+4년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약학계에서는 고교 졸업(예정)자를 약대 신입생으로 선발해 1학년 때부터 6년간 기초교육 및 전공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는 '통합 6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2+4년제가 자연계·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약대 편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PEET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통합 6년제가 도입되면 약

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약대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각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추가 임용 등 약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약대 신입생 선발 규모는 약 1700여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모든 약대가 6년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편제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 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원·교사(校舍)·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시켜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약대가 편제정원이 증가했음에도 다른 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이미 공포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해 대입전형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을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뉴스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어린이 텃밭 체험 '호응'

어린이집 1천여 명 아동 캠퍼스 텃밭 찾아 체험 교육

전북대학교가 전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 교수)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학에 조성돼 있는 캠퍼스 텃밭을 활용해 덕진구 내 어린이 250여 명을 대상으로 텃밭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텃밭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자연 친화적 탐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체소나 과일을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씨앗 현미경 관찰하기 △채소 성장과정 알아보기 △자연요소 느끼보기 △채소 수확하기 △텃밭 채소 탐험하기 등의 활동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텃밭을 가꾸고 재배하는 활동 속에서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식물의 생장에 대해 관찰하

면서 탐구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확에 대한 기쁨도 배우며 학부모들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정옥 센터장(식품영양학과 교수)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활용하는 캠퍼스 텃밭을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더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뿐 아니라 원장, 조리원,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다채로운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목재문화활성화사업 4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가 산림청이 지원하고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4년 연속 선정돼 목조주택과 목공체험 등과 관련된 이론과 목재를 활용한 실습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광철 교수팀(생활대 주거환경학과)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초·중등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목조주택 및 목공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의 특징은 건축재료 중 유일무이하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재생활용품 제작

과 자기가 살고 싶은 목조주택 설계 및 모형 제작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중등 자유학기제와 국산재의 활용 등 연수 이후 각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이 기대된다.

김광철 교수는 "앞서 유치한 전북지역 초·중등교원이 참여하는 교육청 주관 여름·겨울방학 직무연수와 함께 이번 자율연수 사업은 친환경 대표 소재인 목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목공예와 목조주택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내 '대학창업 지원모델 컨설팅 지원' 모집

원광대·전북대·전주대 창업지원단 등 도내 창업선도대학이 공동 진행하는 '대학창업 지원모델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대학 모집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대학(비창업선도대학)이 손쉽게 '대학창업 지원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창업선도대학이 컨설팅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1개 대학을 선정해 3개월 이내의 컨설팅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대학은 신청대학의 컨설팅 수행 의지, 컨설팅 결과 실현 가능성,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확정하고, 참여대학의 자기진

단 후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이 진행되며, 컨설팅을 위한 자문단은 대학창업 지원 구조에 대한 이해와 현장감을 보유한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학창업 지원모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지난해는 원광보건대학교가 선정돼 창업교과목 개발을 주제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접수는 원광대 창업지원단으로 방문하거나 e-mail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063. 850. 746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키로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관)과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은 발달장애학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교육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함

으로써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발달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대상학생을 선발해 교육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학생 교육과

훈련에 따르는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구축하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 지역 발달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제와 지원이 강화되고 실질적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관 이사장은 "등록 발달장애인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때에 학교에서 직

업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로의 의미있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인천, 2017년 대구·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설립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발달훈련센터, 맞춤형훈련센터가 통합 청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 11월 타이어뱅크빌딩(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15층에 2,403.96㎡의 규모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 수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올해 교육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도내주민 등으로 구성(30명)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24~25일 이틀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체육건강공직분과 △창의인재교육분과 △교육정책진흥분과의 총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소관 사업부서 장관관(사무관)으로부터 사업설명 듣고

위원들간 토론과 협의 과정을 갖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주민과 학생의 소리를 수렴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제기한 의견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최대 예산 1,500만원)에 대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